

10대 의붓딸 살인에 가담한 '비정한 친모'

친모 긴급체포...의붓아버지 청테이프·노끈 등 범행도구 미리 준비 성추행 피해 호소 20여일 만에 살해 당해 경찰 늑장수사 도마에

30대 계부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광주일보 2019년 4월 29일자 6면)에 친모도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숨진 소녀는 친모와 정맥이인 두 살배기 이복동생이 동승한 차량 내에서 계부의 손에 의해 잔혹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전 피해 소녀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받고도,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원착과 절차 등 수사 매뉴얼을 지킨다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해 10대 소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광주동부경찰은 지난 30일 계부에게 살해 당한 A(13·중학교 1학년)양의 친모 유모(39)씨를 공모혐의(살인)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재혼한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목포시와 무안군 경계에 추정되는 농로에서 친딸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 유씨와 범행을 공모했으며, 목포에서 청테이프와 노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사건 당일 목포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우고 살해 장소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내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살난 아들이, 뒷좌석에는 아내와 A양이 함께 있었다"면서 "범행 장소에서 아내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A양을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 후 A양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광주 북구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김씨 혼자 등이 틀 때까지 12시간 정도를 A양의 시신을 신고 경복 등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양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지난 28일 새벽 시간대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에서 A양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문경에서 광주로 되돌아 온 김씨가 이날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나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양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숨진 A양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광주에 있는 계부집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고, 이 시기에 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목포 친아버지 집에서 지내온 A양은 결국 친부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냈고, 지난 9일 목포경찰에 계부로부터 성추행 당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계부가 A양 휴대폰에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A양은 경찰에게 지난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성추행 사건은 접수 일주일만인 지난 16일 목포경찰서에서 계부의 주소지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전산상 기준)됐으며, 이첩 이후 주말 등이 겹치면서 실제 수사는 살인 사건이 발생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또 관할지 규칙 때문에 목포에서 광주정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4일 정도 지났다"면서

"특히 아동 성범죄는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친부와 접촉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계부와 친모가 숨진 여중생을 일시적으로 양육할 당시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는 유가족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 30일 소녀 시신을 거두는 절차를 밟으며 광주동부경찰을 찾은 A양의 할아버지(72)는 "몇년 전 아들과 헤어진 며느리 유씨가 양육권과 함께 손녀를 데려갔으며, 재혼한 김씨와 함께 손녀를 때리고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 문을 잠그기까지 했다. 특히 무속인인 유씨는 무당교육을 한다며 손녀를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손녀를 아동보호소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우리집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손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수확여행을 가는 날이었다"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손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일찍 일어나 동생에게 밥도 해주고 착실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 손녀가 있는 것만 같다"고 울먹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 정화하러 왔어요 / 지난 30일 오후 광주천 두물머리나루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명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광주천 가꾸기 시민한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광주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초등생 제자들에게 폭언·체벌 교사 2명 징역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류종명)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사 B(49)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교사로서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학생들을 학대했다"며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반

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고학년 남·여 학생 4명에

게 "이 새끼야, 나가 놀다가 쳐 죽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같은 학교 고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 3월과 6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이 애국 조화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똥 쳐 보라"며 학생들의 머리를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숙사서 '기절 놀이' 완도 고교생 3명 퇴학

동급생에게 이른바 '기절 놀이' 등 가혹 행위를 한 고교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전남도교육청과 완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완도 A고교는 최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 가운데 3명을 퇴학시키기로 했다.

다른 4명에게는 서면 사과, 협박·보복 행위 금지, 특별 교육 이수 등 조치를 했다. 학교 측은 가담 정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가해 학생들은 기숙사, 교실 등에서 동급생 9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십만원 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뺨을 때려 깨우고 다른 학생들은 웃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경찰은 1학년 학생 80여명을 전수 조사해 7명을 가해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점서 영업 방해·폭행 조폭 2년만에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구리식구파 조직원 박모(2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월 8일 새벽 1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총장OB과 행동대원 3명과 함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총장OB과 행동대원 중 1명과 소년원에서 친분 관계를 맺은 뒤 이날 술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행은 주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 중업

원인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이들을 붙잡아 조사한 뒤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였던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다른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한 쇼핑몰에서 검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침대로 돌아가란 말에 격분 병원 불 지르려한 5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나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복도에서 종이 여러 장을 쌓아두

고ライタ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위협했고, 불을 지른 뒤에도 안내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 찾아가 샷자질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이 그대로 꺼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간암 4기인 점, 병원장과 간호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약수 뜨러 갔다 불전함 슬쩍한 60대...절에 또 갔다가 덜미

○약수터 인근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돈을 훔친 60대가 또 다시 사찰을 찾아가 절도행각을 펼치려다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된 최모(67)씨는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원효사의 스님 숙소인 요사체에 침입

해 현금 65만원을 훔치고, 약수터 인근에 놓인 불전함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0만원을 훔쳤다는 것.

○해당 사찰에 평소에도 자주 약수를 뜨러 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형편 좋을 때 시주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좋아 다시 가져간 것 뿐"이라고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59만원~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